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대진(노윤경) 이필레 강준식(김정연B) 김영애 김윤주(오택현) 김창길(백경자) 김한나
맹지혜(임기빈) 박복래 박순웅(이승애) 박순자(이동수) 박순숙(정양학) 배경철(김순화) 석애자(진취부)
송부현(김영진) 오택현(김윤주) 유은자 윤 숙 윤예원 이기자 이영희(문영원) 이상희 이영숙(김병을)
이영순 이한철(박희영) 전순봉 조규래 지옥분 최기훈(정계숙) 최상걸(이미향) 최정규(김미영)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한나 김영애 김재인(이강우) 맹지혜(임기빈) 박복래 박순웅(이승애) 배세영(이경순)
백경자(김창길) 베드로남전도회 송부현(김영진) 유은자 윤 숙 윤영준(박진숙) 이경순(배세영)
이기자 이미지 이영순 이옥남 이윤옥 이한철(박희영) 장윤주(김현진) 추재호 홍유정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대진(노윤경) 이필레 김선희(김재기) 김기성(정은아) 김정연B(강준식) 김춘화 김춘희 김태이 남해순
박권재(송명숙) 박순웅(이승애) 박순자(이동수) 박복순 백성원(안지영) 송다해 송순량 송형기(김현숙)
염영분(천세력) 유은자 이미지 이종문 장성자 전순봉 채영엽 최성현 최효자(김규찬)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방복순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승애 이아린 이아른
임윤정 정서연 정양학 주성락 최귀남 최선미 하세련 홍은민 홍준민 무 명

☪ 월정헌금

홍유정

주간 성경연구

42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잠언 9장 1절 ~ 18절		
월요일	에베소서 1장 1절 ~ 14절	목요일	에베소서 2장 11절 ~ 22절
화요일	에베소서 1장 15절 ~ 23절	금요일	에베소서 3장 1절 ~ 13절
수요일	에베소서 2장 1절 ~ 10절	토요일	에베소서 3장 14절 ~ 2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사	정대진
	전도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찬양대	지위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 산 나 :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만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이수경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진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출거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할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3. 10. 08.

성도가 버려야 할 우월 의식

욥기 36장 1~15절

설교: 이진우 목사

우리는 삼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말씀으로 위로할 때도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받은바 지혜와 은혜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자신이 옳보다 옳고 더욱 지혜를 깨달아 안다는 우월 의식 속에서 옳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한 부로 조언하는 습관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우월 의식에서 비롯되는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살펴 보면서 우월 의식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선 친구들은 욥과 말을 주고받았는데, 엘리후가 입을 연 다음부터는 오직 그의 말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한 다음에도 "아직도 할 말이 있다." 라고 합니다(2절). 그래서 새로운 주장이 전개되는지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35장 15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너의 악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셔서 아직 벌을 덜 주셨다." 같은 비슷한 주장을 오늘 본문 8-15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듣다 보면 말이 길어지니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모순되기도 합니다. 사실 욥과 친구들은 이미 그의 논리적 허점을 눈치챈것지만, 엘리후는 자기 자신에게 도취 되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은 하나님께로 왔기에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엘리후가 스스로 얼마나 교만하고 우월 의식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 상대를 가르치고, 이해시켜,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내면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의식을 전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도 자기 자랑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낮아져 죄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시며, 누구도 자기 싫은 죄인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 혹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월감에 젖은 사람은 상대에게 공감하기 이전에 자기 지식을 전달하기 바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오히려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에게 자꾸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성도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고, 돌을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인 여인 앞에서 침묵하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신 예수님 것처럼 그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2.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엘리후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엘리후는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사람의 행동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 그 결과도 복 아니면 사망으로 정확히 양분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비하면 엘리후의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의 상황은 결코 인과응보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욥은 기존의 질서와 그동안 당연시해 온 세상의 원리가 무너져 그것들을 재검토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엘리후가 제시하는 일반론인 인과응보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처럼 교만으로 인하여 스스로 우월 의식에 빠져 있으면 다른 이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월 의식에 빠진 성도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이중의 폐해를 끼칩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분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말이 거짓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후의 말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욥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전제로 쓰였기에, 그 말 자체로는 진리 일지라도 그 말을 듣는 욥에게는 총이 되고 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었다 한들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신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우월 의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모든 지체 가운데 겸손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성기는 자가 되는 겸허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나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말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우월 의식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도, 그 말씀도,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사랑해야 할 성도라는 정체성이 이러한 교만으로 무너지고 스스로 우월 의식에 빠져 오히려 말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 누구도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사랑하며 성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9 - 42

2023. 10. 1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박 종 삼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양 고 백	사도신경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다 같 이
찬 양	찬송가 426(통215)장
(Praise)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대 표 기 도	[1부]홍정훈집사
(Prayer)	[2부]최기훈장로
	[3부]박종삼장로
성 경 봉 독	율기 36장 16~33절[구약p.796]
(Scripture)	인 도 자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Anthem)	[3부] 홀로 영광 받으소서(홍지연)
설 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
(Sermon)	이 진 우 목 사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Offering)	다 같 이
새 신 자 환 영	
(Introduce new comer)	다 같 이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288(통204)장
(Prais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교문) 김 병 울 장 로
묵 도	시 은 찬 양 대
성 시	시편 98편 8절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15(통512)장
기 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4장 3~8절(신약 p.58)
찬 양	시 은 찬 양 대
설 교	풍성한 열매
예 물 봉 헌	홍 두 표 선 교 사
특 송	김 민 지 집 사
광 고	마리아여전도회
찬 양	찬송가 495(통271)장
축 도	익은 곡식 거둔 자가
	홍 두 표 선 교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같 이
성 경 봉 독	베드로후서 1장 4~11절(신약p384)
설 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성품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렐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1:30 청년부실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도회	월~금 오전 5:00 본당		

마리아여전도회 헌신예배

교회소식

- ◎ 광고
-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예배]
 - 오늘 찬양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합니다. 홍두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시143:1)라는 주제로 11월 19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 속지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순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4분기 다니엘 기도회]
 - 21일까지 4/4분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
 -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가 오늘 15일(주일), 22일(주일), 29일(주일) 2시로 렐나무에서 진행됩니다. 각 목장 및 부서에서는 참여하실 분들을 돌아보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스더 여전도회 산상기도회]
 - 에스더여전도회에서 17일(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합니다.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보라 여전도회 산상기도회]
 - 드보라 여전도회에서 20일(금) 갈멜산 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합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앞 새마을금고 정류장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찬양, 봉사, 위원회 위로회]
 - 교육위원회 각부서 교사, 찬양위원회 각 찬양대, 찬양단, 봉사부 위로회가 29일(주일) 찬양 예배 후 진행됩니다. 다음 주까지 참석인원을 확인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할렐루야, 시은 찬양대원 모집]
 - 할렐루야 찬양대, 시은 찬양대로 봉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며 찬양으로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렐루야 찬양대: 윤영준 장로, 장윤주 집사 ■ 시은 찬양대: 최원지 선생, 정계숙 권사
 - [10월 행사 안내]
 - 10월 15일(주일) 마리아여전도회 헌신예배/홍두표 선교사 선교 보고 / 문답공부
 - 22일(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 예배 / 문답공부
 - 29일(주일) 교육, 찬양, 봉사위원회 위로회 / 문답공부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남전도회월례회 3부 예배 후 / 본당	
* 교육위원회 찬양 예배 후 / 사무실	

◎ 교우소식

- 이선분 권사(소망1/고책3) 고대구로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
- 김병을 장로, 이영숙 권사(충성 특별)의 차남(김재희 집사, 최찬미 집사)가정 10일(화) 특남

◎ 담임목사 동정

- 총회GMS 선교전략회의 19일(목) 서문교회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박종삼 장로	방복순 집사	주경덕 성도, 이경자 권사/ 이옥남 권사	사람2 개봉2	바울 남전도회
다음주	지승호 성도	이복현 권사	김현구 집사, 서재희 권사/ 정옥순 권사	사람2 개봉4	요한 총성 소사 남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사회/인도	기 도
10월						
1주(01일)	최상길 장로	오동호 집사		최상길 장로		
2주(08일)	강영성 장로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강영성 장로	강영성 장로	방원식 집사
3주(15일)	박종삼 장로	홍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박종삼 장로	김병을 장로	이난수 집사
4주(22일)	담 임 목 사	유현호 집사	배경철 장로	김병을 장로	담 임 목 사	홍정훈 집사
5주(29일)	최기훈 장로	김종진 집사		임만순 장로	최기훈 장로	최기훈 장로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